

# 정례브리핑

2020.6.5(금) 10:30, 조혜실 부대변인(통일부)

안녕하십니까? 통일부 정례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일부 장차관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관은 오늘 오전 9시 30분 장관실에서 진행된 접경지역시장군수 협의회 건의문 전달식에 참석하였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국립대전현충원에서 거행되는 '제65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차관은 오늘 부내에서 업무를 볼 예정입니다.

다음은 대북전단 관련 법령 준비에 대한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는 가칭 전단살포금지법 등 대북전단 문제에 한정된 법률 제정을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부는 남북 간 모든 적대행위의 중지,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 등 남북 합의를 이행하고 접경지역의 주민 보호 및 평화적 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법률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러한 차원에서 접경지역의 긴장을 조성하여 주민안전을 위협하고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전단문제에 대한 규제방안도 포함할 계획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혹시 질문 주시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 [질문 ·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정부의 대북전단 입법 움직임과 관련하여 일각에서 북한 눈치보기 논란, 지적을 내놓는 것 같습니다. 이게 발표 시점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 통일부 입장이 있으시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어제도 설명을 드린바 있는데요. 이게 김여정 제1부부장 담화를 계기로 발표할 필요가 있었다기보다는 정부 차원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부터 남북관계에 대한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제도화를 계속 검토해 왔고, 또 판문점 선언에서 DMZ 평화지대화 그리고 상호일체의 적대행위를 중지하는 데 대해서 합의를 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법률로 만들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검토를 계속 해온바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제 문제 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정부의 인식이나 준비상황을 지금 이 시점에서 국민들께 알려드리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여 어제 알려드리게 된 것입니다.

<질문> 최근 들어 김여정 부부장의 명의 메시지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통일부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죄송한데 소리가 거의 안 들려서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최근 들어 김여정 부부장 명의 메시지가 직접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통일부는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김여정 당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은 현재까지 3번의 본인명의 담화를 발표하는 등 최근 남북·북미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만, 김여정 당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의 소속 부서, 이의 직위 등 정확한 위상에 대해서는 확인된바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코로나19 여파로 6.15 선언 20주년 기념행사 프로그램 중 하나인 '평화산책'이 연기됐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통일부와 서울시와 경기도가 공동으로 시민과 함께 하는 6.15 20주년 기념식 및 문화행사는 기존 예정대로 진행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평화산책 프로그램은 코로나 상황이나 아프리카돼지열병 등을 감안해서 하반기 적절한 시기에 재추진하기로 하였고, 방금 말씀하신 6.15 기념행사는 오두산통일전망대에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질문> 탈북단체 회계가 불투명하고 관리가 부실하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는데요. 관련해서 통일부가 감사를 하고 있다고 보도가 됐는데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제가 현재 그 사항에 대해서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서 확인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6월 25일에 당장 탈북단체가 전단을 살포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입법 전까지는 비공개로 날릴 경우에는 막는 게 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 통일부는 어떻게 대처를 하실 건지 입장 부탁드립니다.

<답변> 법률이나 제도가 정비될 때까지는 현행법 틀 내에서 저희도 그

단체 측에 사전소통·설득을 해 나가고, 경찰 등 여러 유관부서와 이런 상황도 공유하면서도 대비할 수 있는 부분들은 대비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에서도 건의문을 전달하신 것처럼 지금 최근에 이런 일련 상황들은 접경지역 주민, 대북전단 문제가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재산에 위협을 초래하고, 또 DMZ 평화지대화 합의 취지에도 맞지 않아서 이것을 접경지역의 평화적 이용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어떻게 볼 수 있을지, 어떻게 검토해 나갈 수 있을지 이런 차원에서 보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통일부에서도 어제 김여정 담화에 대해서 분석하고 계실 텐데요. 상당히 수위가 셋짱아요. 그런데 좀 더 유화적으로 해석해 보면 전문가들 견해가 북한이 ‘너희가 자꾸 협력, 협력 하는데 호응, 호응 얘기하지 말고 먼저 너희 단속부터 먼저 해라.’ 이런 얘기도 있었고 자세히 얘기를, 분석해 보면 오히려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말도 있듯이 오히려 이런 부분이 좀 유화적으로 해석해 볼 때 남북대화를, 남북협력을 하겠다고 하는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통일부가 어떻게 그런 부분에서 보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많은 언론 보도, 전문가들의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도 주의 깊게 보고 있고요. 다만, 김여정 제1부부장의 담화 의도 이런 게 끼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적절치 않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그러니까 어제 긴급하게 이런 브리핑을 하신 게 당연히 반대

목소리를 내는 당사자들한테는 그런 비난이 나올지를 당연히 알고 계셨을 텐데, 그런 어떤 브리핑을 갑자기, 시점의 문제죠. 하게 된 것도 지금 얘기하셨던 것도 있고, 그런 어떤 방금 제가 전에 앞서서 얘기한 것처럼 그런 어떤 분석의 일환으로 그런 브리핑을 급작스럽게 하지 않았나, 그런 해석도 있어서요. 그런 얘기를 또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말하는 겁니다.

<답변> 그것은 이제 해석의 영역이기 때문에 언론에서 해석을 하시면 되고, 저희,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는 이전부터 오랫동안 판문점 선언 이후에 이 합의사항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또한 이 대북 전단 문제가 접경지역 주민들에게 상당한 위협을 초래한다는 측면 등을 고려하고, 또 접경지역의 평화적 이용발전을 해 나가자는 그런 취지를 살리기 위해 이 문제를 오랫동안 검토해 왔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보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